

## 고령층 정보화 수준향상 방안 연구

한 광 식\*

### A Study on enhancing Information Utilization Capability of the Elderly

Kwang-Sik Han\*

#### 요 약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로 고령층에 대한 정보화 수준향상이 국가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층에 대한 정보격차는 타 연령대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고령층 정보화에 대한 국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특성 때문에 이중정보격차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층의 정보화 능력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고령층 정보화 수준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 Abstract

Enhancing Information Utilization Capability of the elderly is discussed in the level of nation due to the advent of information society and aging. Information divide of the elderly is wider compared with other age groups. It is necessary for the elderly to enhance information ability. Government was implementing the policy for narrowing information divide continually. Dual information divide is brought about by the character of the elderly such as status, economic factor, the level of education. Therefore not only continuous nation's policy but road map is needed for enhancing information utilization capability to computer and internet. Information divide of the elderly would be narrowed out of education, economy, earning, age through those ways.

▶ Keyword : 고령층(the elderly), 정보격차 해소(Infomatuon device), 정보화사회(Information society)

---

• 제1저자 : 한광식  
• 접수일 : 2006.09.18, 심사일 : 2006.09.22, 심사완료일 : 2006.11.18  
\* 김포대학 e-비즈니스과 조교수

## 1. 서론

2005년 1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특히, 지속적인 평균수명 연장 및 출산을 감소로 인해 2018년에는 고령인구가 14.3%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超)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령화 사회 도래와 함께 고령층을 위한 정보화 수준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됨에 따라 정부는 고령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 예를 들어, 2004년 정보격차해소중장기계획, 2005년 2차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 등을 추진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소득, 장애정도에 따른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정보격차는 아직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고령층 정보격차 수준은 2004년 기준으로 7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에서도 이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층을 위한 교수법 개발, e-learning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지만, 여전히 고령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아직 대두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국내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이 진행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국내외 고령층 정보화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고령층 정보화 수준 향상 방안 및 정보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국내외 고령층 정보화 현황

### 2.1 국내 고령층의 정보화 현황

#### 2.1.1 국내 정보화 현황

우리나라의 국내 정보화 수준은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5년 6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1,226만명으로, 가입률 인구 100명당 25.5명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 이용률은 국내 인구의 71.9%인 3,257만명으로 세계 6위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용 컴퓨터의 수는 2,620만대로 전체 가구의 54.4%가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정보화 수준은 전체적으로 세계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5년 국가정보화 백서'에 따르면, 세계 50개국 중에서 국내 정보화 지수는 3위로 나타나 1998년 22위, 2004년 7위와 비교했을 때에 비해, 정보화 수준이 급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정보화 수준은 국내 통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정보화 지수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ITU가 2005년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ITU 디지털화 지수는 세계 1위이며, ITU 디지털 접근지수는 세계 4위로 나타났다.

2004년 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조사된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에 따르면, 전체 3,029명의 노인 중 25.8%가 향후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남자노인은 40.5%로 여자노인 16.5%보다 2배 이상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65~69세의 경우에는 38.9%, 70~74세는 22.1%, 75세 이상은 11.9%가 향후 인터넷과 컴퓨터가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유배우 노인은 33.8%로 무배우 노인의 15.4%보다 2배 정도 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노인부부가구의 32.1%에 비해 노인독신 가구는 16.1%로 향후 인터넷과 컴퓨터의 사용의사가 가장 낮았으며,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향후 컴퓨터나 인터넷 관련 정보화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노인의 16.2%가 희망하였으며, 남자노인이 26.4%, 여자노인이 9.7%가 희망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65~69세는 27.2%, 70~74세는 12.6%, 75세 이상은 5.0%로 연령이 어릴수록 교육 희망률이 높았다.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21.1%가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녀동거가구는 15.4%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정보화교육에 대한 희망률이 증가하였으며, 학력이 중·고등학교는 35.9%, 전문대 이상은 52.3%의 희망률을 보여 주었다.

#### 2.1.2 국내 고령층의 정보격차 현황

2003년 국민정보화실태조사에서 전체 국민의 71.9%가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안다고 응답하였다.[1] 그러나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10.6%만이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며, 월 1회 이상 컴퓨터 이용을 하는 노인은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정보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 이용의 주된 목적은 인터넷 활용이 모두 1위로 나타났으며, 노인들의 경우에는 2위가 정보관리 21.9%, 3위가 게임 21.2%, 4위가 교육 16.9%의 순으로

나타나, 장년층의 경우 교육 대신 업무관리가 4위인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한편, 연령별 인터넷 이용여부, 시간, 기간 및 장소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인터넷 이용경험 여부는 9.9%, 월 1회 이상 인터넷 사용 노인은 7.3%에 불과하여 타 연령에 비해 정보격차가 심했다.

표 1. 연령별 컴퓨터 이용여부와 이용능력  
Table 1. Computer Using ability and Rate by Age

(단위: %)

구분	전체		컴퓨터 기사용자	
	이용여부	월1회 이상 사용	이용능력	월1회 이상 사용
6-19세	97.0	96.8	26	99.0
20대	96.8	95.3	29	98.4
30대	90.2	87.1	26	96.6
40대	64.5	59.1	23	91.6
50대	34.5	28.5	22	82.6
60세 이상	10.6	7.6	2.1	71.6

그러나 이미 사용자의 경우, 인터넷 시간은 주당 평균 8.4시간으로 40대와 50대의 9.3시간, 8.6시간으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기간도 평균 42.1개월로 타 연령대에 비해 차이가 거의 없었다.

정보화에 대한 인식 정도 및 정보화교육에 대한 태도 조사에 따르면, 노인세대가 정보화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평균이 2.04로(매우 자세히 아는 편 5점, 전혀 모름 1점) 나타나 타 연령층보다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한편 노인들은 인터넷 사용으로 인하여 '생활이 편리하여 질 것이다'에 51.3%가 동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소득격차 감소, 지역격차수준 감소, 일자리 증가 등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낮은 동의수준을 보였으며, 정보소외와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여 인터넷이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기는 하지만 삶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노인들은 타 연령층에 비해 정보화교육의 경험이 매우 적었다. 60세 이상 노인들의 4.3%만이 교육경험이 있었으며, 연령이 어릴수록 정보화교육 경험자의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나 2003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조사한 '2003년 장노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는 장노년층의 정보화교육 수강 경험률이 8.2%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화교육 수강 비경험자들

에 대한 수강의향은 전체의 46.0%보다 낮은 37.9%로 나타났다.

국내 고령층의 정보격차는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2] 이는 고령층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표 2. 주요 선진국의 노인 정보격차 현황 비교  
Table 2. The State of the Elderly Information Divide Between the Advanced countries and Korea

(단위: %)

구분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평균 격차	한국
연령별 (10대와 50대이상)	34.0	44.0	51.0	70.0	49.8	76.9

학력과 소득 또한 정보접근기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노인계층은 상대적으로 학력과 소득이 낮아 대부분 이중정보격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선도 및 취약집단 간 지수별 정보격차 수준  
Table 3. The Level of Information Divide Between Leading Group and Alienated one

(단위: %)

구분	접근	역량	양적 활용	질적 활용
학력 (대졸이상 대 중졸이하)	50.1	93.3	93.4	94.6
연령 (20대 대 50대이상)	44.2	89.7	89.2	87.7
직업 (사무직 대 농어민)	57.8	88.0	89.5	90.7
소득 (4백만원 이상 대 백만원 이상)	60.0	80.5	79.0	83.1

특히, 노인정보격차를 정보격차 지수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의 접근지수와 역량지수, 양적 활용지수와 질적 활용지수가 타 연령대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정보화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2001년 11.5%에서 2005년 6월말 현재 28.9%로 약 2.5배 증가하였으며, 컴퓨터 보급률도 2002년에는 40.6%에서 2005년에는 6월 63.3%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국민의 약 30%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컴퓨터나 인터넷 접근기회가 부여된 국민들

의 약 70%도 컴퓨터와 인터넷을 소비적으로만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계층과 범주에 따른 정보기회격차와 활용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4]

표 4. 계층별 인터넷 이용률 격차(2003-2004)  
Table 4. Divide of Internet Using Rate by Social Characters(2003-2004)

(단위: %)

구분		2003		2004	
		이용률	격차	이용률	격차
장애	전체국민	59.4	37.0	70.2	35.4
	장애인	22.4		34.8	
성별	남성	65.2	11.6	75.9	11.3
	여성	53.6		64.6	
연령	6-19세	91.4	82.1	96.2	76.9
	50대 이상	9.3		19.3	
학력	중졸이하	5.1	74.9	17.2	75.5
	대졸이상	80.0		92.7	
가구소득	100만원이하	22.9	50.5	32.1	52.4
	400만원이상	73.4		84.5	
지역	대도시	61.6	16.5	72.7	21.8
	군단위	45.1		50.9	
직업	사무직	79.7	49.7	94.3	56.6
	생산관리직	30.0		37.7	

다음은 국내 정보격차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격차는 존재하며 부문에 따라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성별, 직업 간의 정보격차에 비해 연령, 학력, 소득간의 정보격차는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 연령, 소득, 장애는 이 중격차 계층을 형성하는 대표적 요인 중의 하나이다.

둘째 정보접근보다 정보활용 측면에서의 정보격차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국내 정보격차가 기술적 기반의 접근격차에서 사회문화적 차원의 활용과 의식격차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보윤리와 정보의식의 차이와 관련이 있으며, 정보화의 혜택을 본 국민들이 그 성과를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정보화가 가져올 수 있는 각종 사회문화적 효과가 감소되고, 오히려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에 노출되는 위험요인이 상당부분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정보격차의 개념적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보격차는 단순히 정보접근 환경의 조성을 넘어 정보취약계층의 소득증대와 사회참여 확대를 촉진

시킬 수 있는 부가가치, 정보생산성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 2.2 해외 고령층의 정보화 현황

### 3.2.1 해외 정보화 현황

해외 정보화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2004년 말 기준 1억8,500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은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들과 지리적 광대함 등으로 인하여 초고속통신망과 같은 정보화 인프라 환경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었다.

그러나, 2001년부터 미국정부에서는 초고속통신망이 국가의 경쟁력이자 지역적, 경제적, 문화적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01년 9월 이후에는 초고속통신망 보급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3년 10월에는 초고속통신망을 사용하는 가정이 2001년에 비해 2배 이상인 19.9%로 증가하였다.

영국은 유럽국가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한 국가이다. 1998년 이후부터는 전 국민에 대한 능동적인 디지털 사회참여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의 고도화를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다. 통상산업부를 주축으로 전자정부 구현, UK 온라인센터 구축, 컴퓨터교육센터 설립 등을 통해서 2000년 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접근 및 이용향상을 목표로 한 정보격차 해소 1단계 정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2002년에는 전국 6,000여개의 UK 온라인 센터가 구축되었고 정보화 접근환경 조성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였다. 2003년에 영국은 전자정부준비지수(웹수준지수, 정보통신지수, 인적자본지수로 구성됨)가 세계 3위, PC 보급대수 세계 5위의 정보화 수준을 보이고 있다.

### 2.2.2 해외 고령층의 정보격차 현황

미국 전체인구의 41.3%는 여전히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그 주된 이유는 인터넷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거나, 관심이 없거나, 가격이 비싸서, 또는 인터넷에 대한 물리적 취급이 어려워서이다. 이들은 대체로 정보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며 노인인구가 이와 같은 정보화 사각지대에 속해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2005년도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약 36백만명으로 미국 인구의 12.4%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노인인구도 빠르게 증가하여 2050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1%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서

예외일 수는 없으며 노인 정보격차 또한 그러하다.

2003년 10월 기준 미국 전체 인구의 58.7%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22.8%가 초고속통신망을 가정에 설치하고 있는 데 반해, 5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은 44.8%, 초고속통신망은 15.9%로 크게 낮았다. 특히 직업이 없는 경우의 인터넷 사용률은 27.6%로 직업이 있는 사람들의 64.4%와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보이고 있어 직업이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가 있거나 교육과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들은 이중 정보격차 집단으로 나타났는데, 2003년 10월 복합장애가 있는 60대 이상의 노인들 중의 91.7%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시각, 청각, 보행이나 타이핑 등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의 인터넷 사용률은 20% 선에서 머무르고 있어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연소자들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영국은 The Digital Divide in 2025에 따르면, 2004년 전체성인 인구 약 4천700만명중의 약 51%는 디지털 사회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분석에 의하면 이 중에 대부분이 55세 이상의 노인계층이며, 빈곤선 이하의 정보 취약계층에서는 노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5. 미국과 영국의 노인 정보격차 현황  
Table 5. The State of the Elderly Information Divide in America and England

구분	장애유무별	연령별	소득별	성별
미국	19.6	34.0	51.7	+1.0
영국	30.0	44.0	52.0	7.0

2005년 6월 영국의 인구는 6천만명이고,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16%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서 85세 이상의 노인들이 12%에 다하고 이들의 증가율은 전체 노인들의 증가율보다 높아서 노인인구의 내적인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고령층의 증가가 정보격차 지속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디지털 배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고령층이 증가하고 노령인구의 고령화가 더 진행될수록 장애인들의 비율이 증가하며 이는 고령층의 정보화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 III. 고령층 정보화 수준향상 방안

#### 3.1 고령층 정보화 활성화 정책

정부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체계적인 정보화교육을 진행하여 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00년에 시행된 노인정보화교육사업으로 2005년 상반기까지 교육수강 인원은 약 23만명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전국의 90개의 민간 교육기관과 전국 20개소의 노인 전용교육장 그리고 116개 우체국을 통해 연중 고령층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 6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총 198개 교육기관에서 고령층 정보화교육이 실시되었다. 민간기관과 우체국 등 정부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은 166개소이며, SK나 MS사와 같이 기업의 후원금을 받아 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32개소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 대표적인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정보화교육 및 PC 보급을 실시하는 정보통신부의 'e-korean 사업'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교육 사업이 있다. 여성 정보화교육 사례로는 정보통신부의 '주부 인터넷 교육', 노동부의 '여성가장 정보화 훈련', 교육인적자원부의 '여학생 정보화 신장사업', 보건복지부의 '여성정보화교육사업' 등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e-learning 인프라 구축을 실시하였다.

향후 정부에서는 2008년까지 50대 이상의 장·노년층 중 약 247만 명에게 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노인들에 대한 인터넷 이용률을 50.5%로 높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3.2 고령층 정보화 수준향상 방안

고령층에 대한 정보화 수준향상은 우선적으로 노인 개개인의 배경 및 특성별로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노인이 정보 활용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노인들이 정보화교육에 있어서 주요내용인 컴퓨터와 인터넷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노인들의 흥미와 관심에 대한 적극적인 유

도가 미흡하다는 것으로 볼 수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상호관계 증진 및 효과적인 기술습득을 핵심으로 하는 '관계중심적 노인실습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5] 이는 노인들의 인지적·정의적·사회적 특성에 기인한 학습 장애요인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보조도구의 개발과 적절한 교수방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노인의 생활경험과 역사성에 비롯된 다양성을 인정하고 학습자 중심의 시각을 통한 개별적 교육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문화적 특성과 집단인식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코드를 연구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인간적인 라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로 노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장소와 적절한 수준의 교육내용과 수업시간 보장,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들의 정보화교육 장소로는 공신력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교육비용이 싸며, 같은 연령대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적합하다.

특히 노인들의 정보화교육은 단기적인 측면이 아닌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정책과 함께 노인정보화교육에 대한 로드맵이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로 정보활용 수준에 따른 단계적 교육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인터넷 사용과 향후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고려하여, 정보욕구 수준에 따라 초기수용 집단, 중기수용 집단, 후기수용 집단으로 구분할 있다.[6]

초기수용 집단은 인터넷을 잘 활용하고 인터넷에 잘 인지하며 향후 사용의사가 높은 집단이다. 중기수용 집단은 정보화에 접하고 능숙한 정보화기술 습득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 정보화 욕구집단이다. 후기수용 집단은 정보화 이용률이 낮고 향후 의향도 적은 정보화 소외 집단이다. 이에 따라 교육대상 노인들을 세분화하여 집단의 수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고학력과 정보화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질적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며, 저학력과 정보화기기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노인들에 대해서는 정보화교육의 필요성과 정보화 마인드를 심어 주어야 한다. 즉 공급자중심의 교육보다는 수요자중심의 노인정보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노인들의 지적욕구와 노인정보화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인정보화교육의 유료화와 함께 노인정보화교육의 저학력과 저소득층을 위한 저변화대를 위하여 무료 노인정보화교육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현재 남성이 여성보다, 학력이 높고 경제상태가 안정될수록 정보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저학력과 저소득층 노인의 정보화교육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저학력과 경제상태가 어려운 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방안의 개발이 시급하고 정보화교육의 유료화를 통한 노인정보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내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 IV.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 도래와 함께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 정보사회에서 고령층이 가진 경험과 지식의 가치가 낮아지게 되어 대다수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더욱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7], [8]. 따라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고령층에 대한 정보화 수준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방안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정보화 현황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에 대한 정보격차는 타 연령대에 비해 더욱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령층 정보화에 대한 국가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이 가지고 있는 자체특성 때문에 이중정보격차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노인 개개인의 배경 및 특성별로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노인이 정보 활용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고령층의 정보화 수준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양적인 교육보다는 질적인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공급자 중심의 교육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지양해 나감으로써, 고령층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접근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정책과 함께 고령층 정보화 능력 확대를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하며, 고령층 정보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고령층 정보화 수준향상과 정보화 수준 차이를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한국인터넷정보진흥원, “2003 국민 정보화실태조사 최종보고서”, 2003
- [2] 정보통신부, “정보화 통계자료”, 2005
- [3] 최두진 외,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 [4] 최두진, 남길우, 김지희, “2004년 정보격차 현황분석과 시사점”, 정보격차, vol 1, no2, 2004
- [5] 김혜경 외, “고령층 정보화교육 교수법 개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 [6] 김혜경 외, “고령층정보화교육 효과성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 [7] 한국정보문화센터, “2002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II) 고령층”, 2002
- [8]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정보격차해소 백서”, 2006

## 저 자 소 개



### 한 광 식(Han Kwang Sik)

1993년 2월 숭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소프트웨어공학과 졸업  
(공학석사)

1997년 3월~현재 : 김포대학 e-비즈니스과 조교수

지식정보자원관리평가실무위원(정보통신부장관 위촉)

신지식인 선정, 정보통신부장관 표창(2004), 과학기술부장관 표창(2006), 불가리아 소피아대학교 공로패(2004)

<관심분야> 정보검색, IT 창업